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딸에 대한 가족치료: 아버지의 이중구속 메시지를 중심으로

박 태 영(송실대학교), 신 건 철(송실대학교)

I. 서론

본 연구는 아버지가 사용하고 있는 이중구속 메시지(double bind)로 인한 역기능적 의사소통방식으로 인하여 부부간, 자녀간에 갈등이 야기되고 이러한 갈등으로 인하여 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례를 다룬 것이다. 본 연구의 내담자인 정신분열증을 겪고 있는 딸은 10년 전 신경정신과에서 한 달 동안 입원을 한 경험이 있었고, 그 당시 내담자의 증세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며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그 당시 병원에서는 내담자의 증상을 정신분열증으로 진단을 하였다. 내담자는 6년 전에 남자친구를 사귀다가 헤어진 후 정신분열증이 재발하여 신경정신과에서 약을 현재까지 복용하고 있었다. 내담자는 상담을 받을 당시(2004년)에 학교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아 조울증이 재발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딸의 정신분열 및 가족간에 있어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제공하고 있는 아버지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인 이중구속적 메시지가 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과 내담자의 정신분열증과 조울증에 가족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이 어떻게 기여하였는가와 가족치료를 통하여 가족성원 간의 변화된 의사소통방식이 내담자의 증상을 감소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또한, 위의 연구문제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가족상담 축어록을 중심으로 내담자의 정신분열증 증상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인들 중 특히 가족간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과 가족치료로 인하여 내담자의 가족성원들 간의 변화된 의사소통방식을 단일사례연구의 질적분석방법을 사용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질적자료분석 프로그램인 Atlas.ti 5.0을 사용하여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석에서 나타난 개념들의 관계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질적자료의 연구 분석 및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방법 중 Miles와 Huberman이 제안한 시간에 따른 매트릭스와 네트워크

크를 활용하여 상담 전과 상담 후의 내담자의 증상과 증상감소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의 관련 상황을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이중구속의 개념

Bateson(1954)은 이중구속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상호 모순되고 일치하지 않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으며 정신분열증 환자의 가족에게서 이러한 상호 모순된 의사소통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즉 가족의 상호모순된 메시지는 대상을 어떠한 메시지에도 반응할 수 없는 혼란 상황에 놓이게 함으로써 결국 정신분열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보았다.

이중구속의 서로 갈등적인 두 가지 명령이 가족성원에게 전달되어 문제를 더 혼란스럽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그 명령이 서로 다른 수준 즉 겉으로 표현되는(표면적인) 메시지와 표현되지 않는(유추적) 메시지가 서로 상반된다고 본다(Bateson et al., 1956).

2. 치료에 대한 이론적 준거들

1) Murray Bowen의 가족체계이론

본 사례에서는 부모와 미분화된 자녀를 분리시키고 엄마의 가정내에서의 과도한 역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들에게도 자신의 삶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가족관계내의 자아분화를 시도하였다.

2) MRI(Mental Research Institute)의 의사소통이론

본 사례에서는 부부, 부모-자녀, 남매 사이에서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을 찾고 그러한 의사소통방식과는 다른 기능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방식으로 전환을 시도함으로써 가족관계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질문

첫째, 정신분열증과 조울증에 가족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이 어떻게 기여하였는가?

둘째, 가족치료를 통하여 가족성원 간의 변화된 의사소통방식이 정신분열증과 조울증의 증상을 감소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2. 연구대상 및 상담기간

상담이 의뢰된 당시 아버지(60세)는 무직이고 어머니(56세)는 대학교부근에서 16년동안 하숙업을 하고 있으며 딸(31세)은 대학원에 재학, 아들(29세)은 허리수술 후 무직인 상태로 클라이언트(딸)의 가정 내에서 어머니에게 과도한 역할의 부담이 부여되고 있었다. 상담기간은 2004년 11월 9일부터 2005년 8월 4일까지 총 18회의 개별상담과 부부상담, 가족상담이 병행되었다. 치료에 참석한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클라이언트(딸) 및 남동생 모두 4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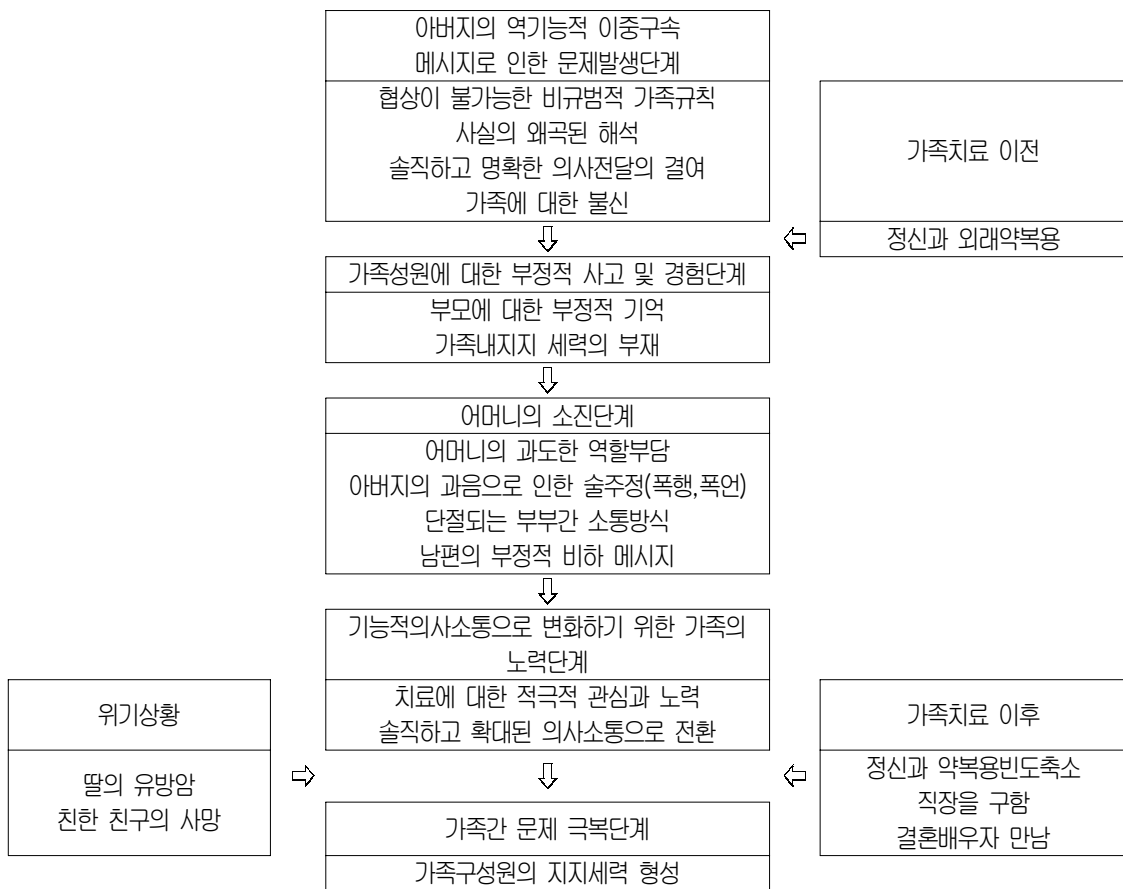
3. 분석방법

분석방법으로 개입방법의 효과를 규명(Polstol & Lynch, 1981:373)하는 질적연구방법인 단일사례연구 방법(single case study design)을 사용하여 18회에 걸친 상담축어록과 상담 시에 기록된 메모, 그리고 정신분열증과 관련된 문헌들을 활용하여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과정을 통해 연구 목적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을 실시함에 있어서 질적자료분석프로그램인 Atlas.ti 5.0을 사용하여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석에서 나타난 개념들의 관계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질적자료의 연구 분석 및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방법 중 Miles와 Huberman이 제안한 매트릭스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상담 전과 상담 후의 내담자의 증상과 증상감소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의 관련 상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V. 상담내용 분석

1. 과정분석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인 이중구속으로 인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딸의 문제가 가족치료를 통해 변해가는 과정을 분석하였으며 각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딸에 대한 가족치료에 따른 변화과정 분석

2. 근거자료의 범주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딸의 대한 가족치료과정에서 도출된 개념과 범주는 <표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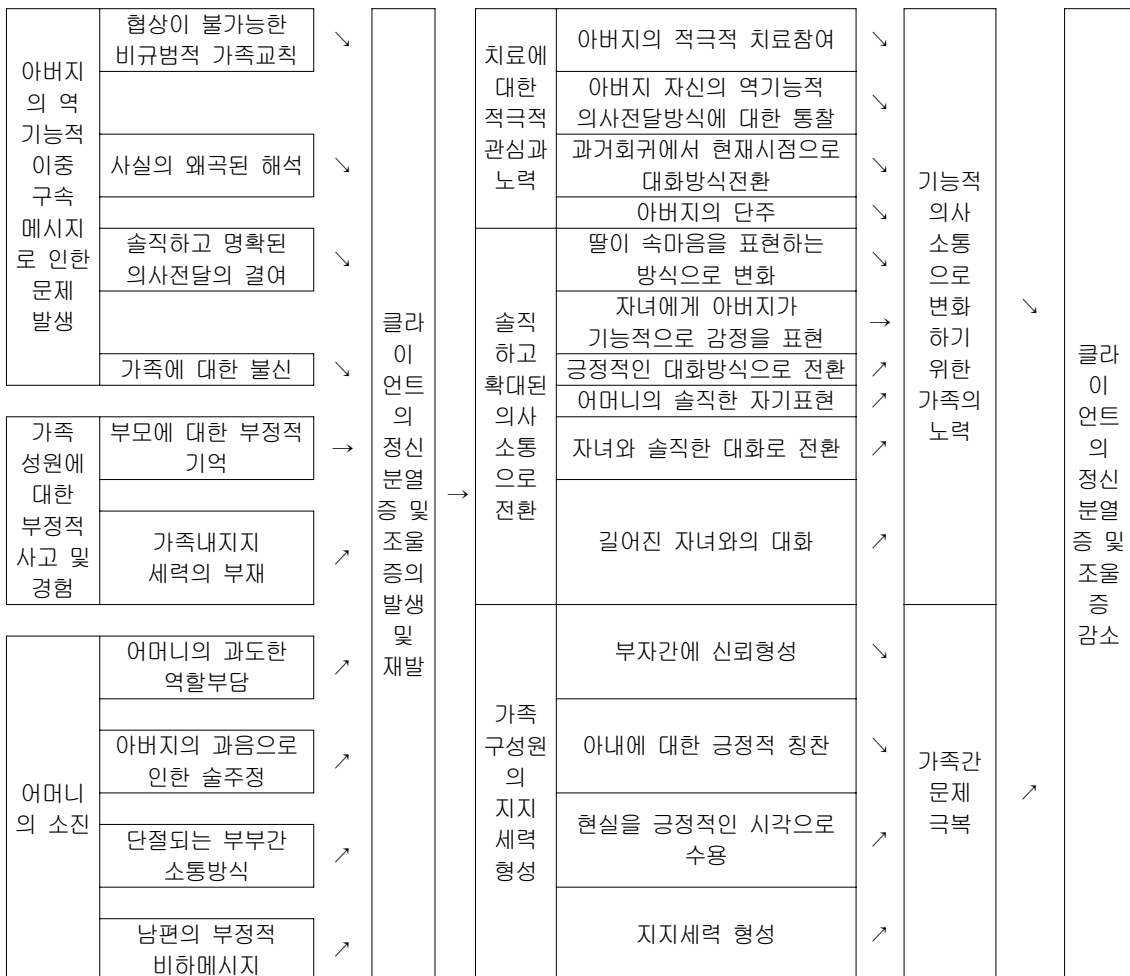
| 상위범주 | 하위범주 | 개념 |
|-------------------------------|--------------------|---|
| 아버지의 역기능적 이중구속 메시지로 인한 문제발생단계 | 협상이 불가능한 비규범적 가족규칙 | 정형화된 아버지의 사고, 협상을 할 수 없는 아버지의 대화방식, 일방적인 양육방식, 일방적 대화방식, 역기능적 가족규칙, 가족간 암묵적비밀, 부적절한 문제해결방식, 본인위주의 사고방식, 원가족의 문제 |
| | 사실의 왜곡된 해석 | 사실을 왜곡해서 인지, 아버지 권위에 대한 위기의식, 아내에 대한 부정감정이 자녀에게 전이, 역기능적 갈등대처방식, 허구적 사실의 진실화, 합리화, 외부표현에 민감하게 반응, 남편의 의견을 무시한다고 인식, 양가감정, 외적 귀인성향, 가정의 권위가 무너졌다 인식 |
| | 솔직하고 명확한 의사전달의 결여 | 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대화패턴, 간접적인 의사전달방식, 솔직명확한 의사소통의 부재, 생략된 언어표현, 빙빙돌리는 표현, 짜증과 신경질의 악순환적 반응, 이중구속메시지, 갈등을 속으로 삭힘, 아들의 약한 자기표현방식, 대리인을 통한 의사전달방식, 딸에 대한 이중적 행동표현, 속으로 불만을 쌓아둠, 과거회귀형 대화방식 |
| | 가족에 대한 불신 | 부인이 남편을 가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믿음, 아들에 대한 불신, 아들에 대한 불안 |
| 가족성원에 대한 부정적 사고 및 경험단계 | 부모에 대한 부정적 기억 | 과거로부터 지속된 거부의 경험, 아버지로부터의 신체적 폭력, 부부갈등이 자녀에게 영향, 아버지에 대한 부정감정, 아버지에 대한 공포, 가족들에게 불안을 제공, 부모로부터 칭찬의 부재, 부정적 언어의 지속적 전달, 아버지의 외도, 딸에 대한 신체적 폭력,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기억, 무시된 아들의 의사, 아버지의 부정적 표현방식 |
| | 가족내지지 세력의 부재 | 가족으로부터의 소외감, 가족들에게 갖는 서운함, 경직된 남매관계, 가족내 공감해줄 대상의 부재, 부부간 믿음의 부재, 가족간 원활한 대화의 부재, 아버지와 아들간 소원한 의사소통, 딸과 단절된 대화, 단절된 의사소통, 남매간의 서운함, 누나에 대한 동생의 폭력, 가족간 공간의 부재 |
| 어머니의 소진단계 | 어머니의 과도한 역할부담 | 가정내 역할의 과도한 부여, 신체적 기능저하 |
| | 아버지의 과응으로 인한 술주정 | 모욕감을 주는 언어표현, 거르지 않은 표현, 알콜공동 의존, 신체적 폭력 |
| | 단절되는 부부간 소통방식 | 부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대화방식, 단절된 부부간 대화방식, 부부의 성적 갈등 |
| | 남편의 부정적 비하 메시지 | 부정적 반응의 상승작용, 부정적인 암시를 제공, 아내를 이방인으로 느낌, 기대에 못미치는 아내에 대한 실망, 아내에 대한 원망, 아내에 대한 부정적 인식, 아내에 대한 배려가 없는 표현, 과부자식에 대한 비하, 원가족으로 인한 갈등, 원가족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
| 기능적의사 소통으로 변화하기 위한 가족의 노력단계 | 치료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노력 | 아버지의 적극적 치료참여, 자신의 의사전달방식에 대한 통찰, 과거회귀에서 현재시점으로 대화방식 전환, 아버지의 단주 |
| | 솔직하고 확대된 의사소통으로 전환 | 딸이 속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변화, 자녀들에게 기능적으로 감정을 표현, 긍정적 대화방식으로 전환, 개방화된 딸의 의사전달방식, 어머니의 솔직한 자기표현, 자녀와 솔직한 대화로 전환, 길어진 자녀와의 대화 |
| 가족간 문제 극복단계 | 가족구성원의 지지세력 형성 | 부자간에 신뢰형성, 아내에 대한 긍정적 감정, 현실을 긍정적 시각을 수용, 지지세력 형성 |

<표 1>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딸에 대한 가족치료 과정에서 도출된 개념과 범주

1) 정신분열증과 조울증에 가족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이 미친 요인들에 관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에 따른 분석

| 하위범주 | 개념 | 인용문 |
|-------------------------|-----------|--|
| 솔직하고 명확한 의사 전달의 결여 (13) | 이중 구속 메시지 | <p>아내: 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실력이나 니 수준에 니가 열심히 해서 갈수 있는 대학교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서울대 연대 고대 아니면 똥통학교니깐 못 간다 가지마라. 또 그러다가 어느 날은 또 갑자기 확 뒤집어 가지고 대학교 안가도 나는 잘 먹고 잘사니깐 안가도 상관없다. 그런 식으로 극과 극을 달리는 말들에서 아이들이 기준점이 흐려지지 않았나1:59(2167:2167)</p> <p>아들: 결국에는 메시지는 단적으로 나쁜 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한참 머리가 아픈 거죠. 이게 좋은 애긴가? 어떻게 하자는 애긴가? 이걸 생각하면 한참 머리가 아프고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답이 바로 와요. 지금 아버지가 상수리 나무를 얘기했지만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한참 생각하고 나쁜 쪽으로 말하면 나가 살라는 얘기잖아요. 1:22(3358:3358)</p> <p>딸: 전문대는 학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울면서 스파르타 학원이라도 보내달라고, 또 재수도 안 된대요. 그러면서 약주 드시고 하시는 얘기가 10년이 걸려도 대학가면 된다고1:22(3367:3367)</p> |

① 아버지의 역기능적 이중구속메시지로 인한 문제발생단계<범주>



<그림 2> 가족치료 상담에 나타난 변화의 과정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개별상담과 가족상담을 병행하여 실시하였고 치료기간은 2004년 11월부터 2005년 8월까지 10개월 동안 총 18회기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가족상담을 하는 가운데 내담자의 부모님 간의 의사소통방식, 그리고 내담자와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와 내담자 남동생 간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이 발견되었고, 특히 아버지의 어려서부터 사용해 왔던 이중구속적인 메시지로 인하여 아버지와 가족 간에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발견되었다. 또한 아버지는 신혼 초부터 어머니를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주기를 바랐고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주지 못하는 부인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를 하였다. 또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자신의 기준을 자녀들에게 강요하였고, 이러한 아버지의 강요와 더불어 아버지의 이중구속적인 메시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자녀들은 거의 미칠 지경에 이르렀다. 가족치료로 인하여 아버지는 자신이 이중구속적인 메시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어머니 또한 남편과의 대화하는 방식이 변화되었으며, 이러한 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의 변화로 인하여 부부간의 변화와 내담자와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와 내담자 남동생과의 관계, 내담자와 남동생 간의 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족치료로 인하여 상담 받기 전의 의사소통방식과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변화된 의사소통방식이 현저한 차이가 나게 되었다. 특히 내담자와 아버지와의 관계 변화와 부모님 간의 의사소통방식의 변화, 그리고 내담자와 남동생, 남동생과 아버지 간의 솔직하고 일치하는 의사소통방식으로의 전환이 있었다. 따라서 상담 이후에 내담자는 정신분열증에 대한 약을 복용하지 않게 되었고 상담이 종결된 후에 결혼을 하여, 현재는 내담자와 남편, 그리고 친정식구 간에 의사소통이 잘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가 경험하고 있는 정신분열증과 조울증은 클라이언트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이 아니며, 클라이언트가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체계 중 많은 영향을 주는 가족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문제의 원인을 살펴 보아야 함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기 이전에 앞에서 제시한 문제점들과 해결방법들에 대한 교육을 통한 예방적 접근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박태영·김현경 (2004). 친밀한 가족관계의 회복: Murray Bowen의 가족체계 이론의 적

- 용. 서울: 학지사.
- 반신환(1999). 이중구속이론(THE DOUBLE-BIND THEORY)의 새로운 이해. 대학상담연구 10(1). 89-103.
- Bateson, G., Jackson, D. D., Haley, J., & Weakland, J. H.(1956). Toward a theory of schizophrenia. Behavioral Science, 251-64.
- Broderick, C. B., & Pulliam, H.(1979). Family process and child outcomes. In W. R. Burr, R. Hill, F. I. Nye, & I. L. Reiss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New York: FreePress.
- Duncan, B. K., Solovey, A. D., & Rusk, G. S.(1992). Changing the rules: A client-directed approach to therapy.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Friedman, E. H., (1991). Bowen theory and therapy, In Gurman, A. S., & Kniskern, D. P. (Eds). Handbook of family therapy. New York: Brunner/Mazel.
- Goldenberg, I., & Goldenberg, H., (2000). Family therapy: An overview(5th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Schlanger, K., & Anger-Diaz, B. (1999). The brief therapy approach of the Palo Alto Group. In D. M. Lawson., & F. F. Prevatt. Casebook in family therapy. New York: Brooks/Cole.
- Watzlawick, P., Weakland, J., & Fisch, R. (1974). Change: problems formation and problem resolution. New York: W. W. Norton.
- Weakland, J., Fisch, R., Watzlawick, P., & Bodin, A. M. (1974). Brief Therapy: Focused problem resolution. Family Process. (13). 141-168.
- Wynne, L. C., Ryckoff, I. M., Day, J., & Hirsch, S. I. (1958). Pseudo-mutuality in the family relations of schizophrenics. Psychiatry 21. 205-220.